

게리 미도어스 박사, 고린도전서, 23강, 고린도전서 8:1-11:1, 우상에게 제사한 음식에 대한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변.

고린도전서 10장

© 2024 Gary Meadors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고린도전서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게리 미더스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23, 고린도전서 8:1-11:1, 우상에게 드리는 음식 제사에 대한
바울의 답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8장부터 11장 1절까지의 세 번째 세션으로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음식과 우상, 1세기 로마 식민지의 문화적 배경,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유대적 유산을 가지고 들어온 새로운 기독교인들의
투쟁, 그리고 그들이 종교적 다원주의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 이 사회 구조, 사회적 지위, 우리가 엘리트라고
부르는 것, 그리고 그들이 권리로 여기는 것의 복잡성을 더하면 조금
복잡해집니다. 8장에서 우리는 바울이 우리가 아는 것과 공동체 자체에
대한 이 질문을 어떻게 균형 있게 다루는지 특히 보았습니다.

그는 지식의 측면에서, 예, 신은 하나이고 강력한 일신교가 있으며,
고린도 사람들이 자신의 환경에서 익숙했던 모든 신과 신 등을 가진
종교적으로 다원적인 문화는 타당하지 않다는 사실을 지지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제로 이 모든 도상으로 정의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사실임을 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유대인 기독교 전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그는 8장 8
절에서 말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다양한 방식으로 지식을 이용하는 사람들, 아직 정신이 적절하게 변형되지 않은 사람들을 보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양심은 약해서 그들의 세계관 구조가 적절하지 않아서 성전을 통과한 고기를 먹고도 그것을 연루된 죄책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그들이 약하다고 말합니다. 약함은 성숙한 세계관의 부족을 설명하는데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보호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세계관에 들어갈 때 삶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1세기에는 결코 쉽지 않았을 전환을 해야 했고 그 문화권에서는 유대인의 환경과 일신교, 윤리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그렇게 하는 데 끔찍한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8장의 시작 부분에서 시작하듯이 지식과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은 공동체의 활동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것들을 균형 있게 조절하려고 합니다.

13절에서 그는 결론지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먹는 것이 내 형제 자매를 죄에 빠지게 한다면, 그가 의미하는 바는 약한 사람이 편안한 세계관 전환 수준을 넘어서서, 그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여전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내면의 일을 하고, 세계관과 가치를 어겼으며, 그것을 무시함으로써 양심을 상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회를 규제할 수 있도록 신이 인간에게 창조한 전체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것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끔찍한 짓이에요. 그리고 나쁜 패턴을 만듭니다. 그리고 바울은 강한 사람에게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들에게 시기가 이르기 전에 전환을 강요한다면, 형제 자매들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들을 이끌어야 합니다. 이제, 더 복잡한 문제들이 있고, 물론, 그 복잡한 문제들은 우리가 이 특정 문화권에서 사회적 지위에 대해 배운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원칙은 분명합니다. 당신은 그들을 상처입힙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들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먹는 것이 내 형제나 자매를 죄에 빠지게 한다면, 나는 다시는 고기를 먹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식이 참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호받아야 합니다. 인정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람들이 지식을 얻고 세계관을 정리할 수 있는 곳으로의 전환을 도와야 합니다. 그래야 양심이 그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세계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내적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 1세기 고린도 교회의 상당 부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든 교회와 모든 기독교 단체는 항상 거기에 연속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은 약하고, 당신은 강하고, 그것이 그들의 세계관이 발전한 방식입니다. 당신은 약하고, 그들의 세계관은 발전이 부족하고, 그들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항상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고린도의 문화적 환영 없이도, 당신은 여전히 모든 회중에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가져와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에서의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현재 문화에서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매우 철저하고 건전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적 가르침, 신학적 가르침, 윤리적 가르침, 모든 것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그것을 순환시켜서 오는 사람들이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풀은 내가 그들을 화나게 하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내 권리를 제한할 거라고요.

저는 희생할 겁니다. 저는 그 성장 문제를 얼마나 오랫동안 수용해야 하는지 묻는 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정당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든 것을 운영하게 둘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하루의 마지막에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성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부드러워야 합니다.

당신은 그들을 멘토링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일정 기간 동안 성장하기를 거부하면 진실에 대한 호전성으로 전환됩니다. 그러면 다른 교전 규칙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설정에서 폴의 참여 규칙은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는 Strong의 견해를 지지하는데, 그들이 올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지식보다 더 많은 것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교육합니다. 또한 커뮤니티를 멘토링하는 것을 의미하는 사랑도 있습니다.

멘토링은 일부 조정과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르칠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하고 호전적이 되면 교전 규칙이 바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이런 종류의 일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제 견해의 함축입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 지난번에 살펴본 9장에서 돌아와 권리 문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신을 사도로, 하나님으로부터 특권을 받은 사람으로,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권리를 가진 사람으로 사용합니다. 그는 지지할 권리가 있는데, 이것이 9장의 전반부가 특별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지원했습니다. 아마도 코린트 근처에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이스미아 게임에서 그의 천막 만들기는 아마도 그 배경 중 일부일 것입니다.

그는 12:12b절에서 말하지만, 우리는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권리는 교회가 부양하고 돌보아주는 권리였고, 그들이 사역을 한 이유입니다. 그는 사회적 엘리트가 사용하던 것과 같은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들은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들의 권리는 통제하는 부분이 되었고 기독교 윤리는 아닙니다. 바울은 "글쎄요, 저는 권리가 있고, 저는 어떤 이유로 제 권리를 포기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당신이 의무를 다하고, 그가 의무를 다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모두 코셔가 될 것이고, 모두 수용 가능한 기독교적 행동이 될 것이라는 관점에서 그것에 대한 아름다운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의무의 부름을 넘어서고 싶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의 지원을 받지 않고 스스로를 지원했고, 따라서 그는 의무의 부름을 넘어서서 보상의 영역에 들어갑니다. 당신은 단지 의무를 다하는 것만으로는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당신의 헌신을 진정으로 보여주기 위해 의무를 넘어갑니다.

이제,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의무를 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폴은 이 사람들에게 그런 종류의 조종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도자들이 종종 내리는 선택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지역 사회의 지도자였을 가능성이 크고, 더 많은 특권을 누리고, 더 많은 자원을 가지고, 더 많은 권력을 가졌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9절에서 내가 자유롭지만, 나는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23절에서 그것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좀 더 풀어야 할 부분이 있지만, 저는 그냥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강의는 이 장과 관련된 노트를 마무리해야 하고, 저는 계속해야 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아주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24절. 모르시나요? 다시 그 구절로 돌아가겠습니다. 도전적인 구절입니다.

경주에서 모든 주자가 달리지만 오직 한 사람만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내가 전에 언급했듯이 우리의 현재 문화에 그다지 적응적이지 않을 것이다-25절. 경기에서 경쟁하는 모든 사람은 엄격한 훈련을 받는다.

그들은 오래가지 못할 면류관을 얻기 위해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영원히 지속될 면류관을 얻기 위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전히 사역을 하는 것, 즉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되는 것은 의무의 부름을 넘어서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으며, 바울은 그런 면에서 지름길을 택함으로써 상을 받을 자격이 박탈되지 않을 것입니다. 글썄요, 그게 전부입니다. 10장이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10:23에 이 옳은 것으로 돌아옵니다. 저는 무엇이든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우리가 권리의 문제에서 강자라고 부르는 것을 다시 참여시키지만,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과 함께 막간을 보내고, 그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그것은 다소 정교한 것이므로, 그는 자신의 예를 제시하고, 이제 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회를 놓쳤다는 예를 제시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그것이 표현의 한 가지 방법입니다. 10절 :1, 10장:1절,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모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 아래 있었고, 모두 바다를 통과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에서 모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같은 영적 음식을 먹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동등한 입장에 있었고, 그들과 함께한 같은 영적 반석에서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습니다.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우리가 주님의 천사의 육화 이전 측면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저는 지금 그것에 대해 곁길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해설에서 그것을 찾아볼 수 있고, 저는 당신을 위해 그것을 열어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은 그들 대부분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몸은 광야에 흩어졌습니다. 글썄요, 우리는 그에 대한 역사적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것은 주로 지식에 반하는 것이었고, 모세와 신의 방식이 아니라 그들의 방식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이런 일들은 우리가 그들이 한 것처럼 악한 것에 마음을 두지 않도록 하는 본보기로 일어났습니다. 그는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특권을 누리고도 자신의 정욕과 이기심 때문에 실패했다면, 우리는 경고를 받는 게 낫습니다. 예를 들어, 킹 제임스 성경의 단어는 아마도 유형일 것입니다. 유형은 어떤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성경의 범주입니다.

우리가 유형학이라고 부르는 것에는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질문은, 노트에서 간략하게 나올 것이지만, 이것이 나중에 예시로 사용되도록 예측하려는 예측적인 것이었는지, 아니면 우리가 되돌아보고 사용하는 유추적 예인지입니다.

우리가 유형적이라고 부르는 것의 대부분은 유추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방식을 보여주며, 나중에도 같은 방식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예측된 것이 아닙니다.

태버넌클 성전과 같이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우리는 이 유형론에 대해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충분히 말했죠. 그래서 그들은 꾸지람을 들었고, 그들이 저지른 죄 중 일부는 우리도 그들 중 일부가 저지른 것처럼 성적 부도덕을 저지르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고린도에서 이미 이야기했던 것들을 암시하고 있으며, 그들은 그 결과로 영적 특권을 잃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모두 당신이 똑바로 서서 올바르게 날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처럼 실패할 것이라는 비유적인 예입니다. 불평하지 마십시오.

11절. 이런 일들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고, 시대의 절정이 다가올 우리에게 경고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굳건히 서 있다고 생각한다면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유혹은, 사람에게 공통된 것 외에는 어떤 유혹도 너희를 이긴 적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유혹당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유혹을 받을 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견디게 하시리라.

간단히 말해서, 이것은 매우 유명한 구절입니다. 물론 고린도전서 10 장입니다. 요점은 이 고린도 공동체가 기독교 세계관과 윤리에서 벗어나려는 유혹을 받고 있으며, 바울은 그들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특히 엘리트 계층에 있는 일부 사람들에게서 그들의 문화에서 그렇게 하려는 유혹을 받고 있으며, 그것을 정당화하려는 유혹을 받고 있으며, 바울은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승부이지만, 신은 당신이 그것을 극복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어떻게? 올바른 세계관을 갖고, 올바른 일을 함으로써. 때로는 탈출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면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생각하는 방식, 세상과 관계를 맺는 방식, 그리고 그 관계에서 신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의 한 측면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우상 숭배를 피하십시오. 여기 돌아왔습니다. 이 장에서 시작된 것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상 숭배를 피하라. 나는 이 말을 분별 있는 사람들에게 한다. 내가 하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10장을 인식하는 모든 사람, 전통적 관점과 대안적 관점 모두, 10장이 우상 숭배에 대한 부정적인 진술을 한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이제 124 페이지의 노트로 돌아가서 추적해 보겠습니다. 124페이지 맨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의 실패는 피하세요.

이스라엘은 세상과 어울리고 희롱하는 데 굴복했고, 그 결과 특권의 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들은 권력을 잃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엄하게 다루셔야 했습니다. 분명히 고린도 사람들 중 일부는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동일시가 죄와 심판으로부터 많은 보호를 제공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특권에는 책임이 따르고, 책임을 지지 않으면 특권이 사라집니다. 9장은 경주를 하지 않으면 실격될 위험에 대한 경고로 끝납니다. 10장은 이스라엘이 경주를 하지 못하고 자유를 잘못 사용하고 영적 특권을 당연하게 여김으로써 실격된 모습을 묘사합니다.

1~13장에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유추하여 경고합니다. 위대한 영적 특권은 도덕적 계명을 어길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바울은 공동체에 대한 그의 분석으로 여기서 많은 것을 마무리하고 있으며, 심지어 성적 죄에 관해서도 그는 그것을 다시 제기합니다.

이스라엘은 큰 특권을 누렸지만, 하나님께 적절한 반응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여기까지 읽어보세요. 이 강의에서 원하는 한계를 지키기 위해 글을 썼습니다.

6절에서 13절. 이스라엘의 행동은 미래 세대를 위한 정경화된 교훈입니다. 이러한 예의 본질은 회고나 원래 의도의 예라는 것입니다.

신이 글을 썼나요?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과 기록된 일들이 나중에 언급되도록 의도된 건가요? 과장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도가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언급한 두 가지에 대해, 여러분은 성경 전체에 걸쳐 큰 은유를 설정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유형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막과 성전에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것들이 있고, 그때 일어났던 것과 같은 일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그것이 우리가 유추적 연결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영적 역사와 인간 역사는 항상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그 예는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 파괴의 길을 시작한다는 교육적 가르침입니다.

10:7과 10의 이러한 예들의 본질은 우상숭배였습니다. 성적 도덕성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은 했고 이스라엘은 졌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사람들이여, 하나님을 시험하면 당신도 지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오래 전에 하라고 들은 대로 세상과 분리하십시오.

불평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이 불평의 모든 것에서 숫자와 출애굽기가 언급됩니다. 광야 방황 기간 동안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매우 가혹한 심판.

그리고 바울은 이 회중에게 그것을 상기시킵니다. 특히 10장이 잘 흐르려면 유대인 역사에 대한 꽤 좋은 지식이 있어야 했는지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혼합, 유대인이 우상 숭배를 다루었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우상 숭배를 다루어야 하는 혼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매우 흥미로운 종류의 흐름이 있습니다. 10:14-22에 있는 우상 잔치와 성찬례와 유추하여 경고합니다. 우상 숭배에서 피하십시오.

18절,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라. 제물을 먹는 자는 제단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 우상에게 제사한 음식이 무엇이고 우상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인가? 아니요, 이교도의 제물은 귀신에게 바쳐집니다. 우상 잔치와 우상과의 연합에 대한 불확실한 말은 없습니다.

카이사르를 신으로 경의를 표하거나 우상에게 경의를 표하는 듯한 것은 무엇이든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21절에서 그는 계속해서, 주님의 잔과 귀신의 잔을 함께 마실 수 없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모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질투를 일으키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분보다 더 강한 것입니까? 그러므로 고린도 공동체에는 설명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연회에서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보다 더 널리 퍼져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적으로 다원적인 도시 안에서 어떤 식으로든 경의를 표하고 교제하는 것은 당신이 걸을 때마다 우상이 사방에 있었습니다. 무엇을 하든 우상 숭배에 맞섰습니다. 그런 것과 별개로 사는 것은 당신의 세계관에 오점을 남기지 않는 의미에서 사소한 도전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2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믿는 자의 자유. 하지만 무슨 뜻일까요? 저는 무엇이든 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6장에서 앞서 본 인용문과 같습니다. 나는 무엇이든 할 권리가 있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당신은 말합니다. 나는 무엇이든 할 권리가 있지만, 모든 것이 건설적인 것은 아닙니다. 아무도 자신의 이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익을 추구해야 합니다.

정말 요약이네요. 8장부터 10장까지를 요약한 것뿐만 아니라 그보다 앞선 장들도 요약했습니다. 권리는 중요하지만, 권리만이 결정을 내리는 유일한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동체가 있고, 어떤 수준에서든 어떤 방식으로든 우상 숭배에 참여할 수 없다는 진실과 지식도 있습니다.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시장에 문제가 있고 누군가의 집에서 식사를 해서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제기되면 우상에 참여할 수 없다는 지식을 지지하는 선을 따라야 합니다.

이제, 그가 25절에서 어떻게 그것을 이어가는지 주목하세요. 양심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고기 시장에서 파는 것은 무엇이든 먹으세요. 25절에서,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슬로건으로 여길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바울이 그들에게 우상은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양심을 위해 질문하지 말라고 말할 때, 저는 그것이 오래된 킹 제임스 성경이 그것을 읽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NRSV가 우리를 나쁜 방향으로 이끌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했는지 아니면 바꾸었는지 봅시다. 25, 양심의 근거로 아무 질문도 하지 않고 고기 시장에서 파는 것은 무엇이든 먹으라가 NRSV에 있는 방식이며, 더 낫습니다. 킹 제임스는 양심을 위해 아무 질문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정말 조심하세요. 킹 제임스 버전은 가르침을 만든 이전 세대에 대한 생각을 많이 조건지었고, 번역이 바뀌어도 가르침은 내려갑니다. 양심을 위해 질문하지 마세요.

저는 사람들이 양심을 위해 질문하지 않는 것은 모르는 것이 당신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라고 말함으로써 설명하려고 하는 것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바울이 모르는 것이 당신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가르쳤다고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킹 제임스 버전에서 양심을 위해 질문하지 않는 단어에 적용된 일탈입니다. 그것은 매우 문자적인 표현이지만 NIV가 어떻게 표현했는지 들어보십시오. 무엇이든 먹어, 실례합니다, 돌아가서

먹어, 양심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고기 시장에서 파는 무엇이든 먹을 수 있습니다.

양심을 위해 질문하지 않는 것은 양심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지 않고는 한 가지 일입니다. Gooch는 참고문헌에서 이에 대해 매우 좋은 기사를 썼습니다. 요점은 이것입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고기에 대해 질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고기는 오염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양심을 위해 질문하지 않습니다. 양심은 당신을 괴롭히지 않아야 합니다. 당신의 세계관에서는 양심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킹 제임스 성경에 따르면 양심을 위해 질문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신이 모르는 것이 당신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틀렸습니다.

요점은 맥락에 있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 질문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고기가 우상으로 더럽혀졌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신들과 장난치고 장난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더럽혀지지 않았고, 먹을 수 있으며,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양심이 당신을 괴롭힐 필요가 없습니다. 25절은 이에 대한 것입니다.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당신을 식사에 초대하고 당신이 양심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당신 앞에 놓인 것을 무엇이든 먹고 싶어한다면, 같은 문구를 사용합니다. 모르는 것이 당신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당신은 이미 알고 있지만,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문제로 삼지 마십시오. 이제, 믿지 않는 주인이 당신에게 이것은 희생을 위해 제공된 것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읽을 때 종종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글썄요, 그들은 그들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들이 친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손님에게 문제가 된다면 하지 말라고 경고함으로써 그들을 보호하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것을 주의하세요. 그들이 질문으로 제기하면 먹지 마세요. 당신에게 말한 사람을 위해서도 먹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 매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양심을 위해서요. 저는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을 말하는 것이고, 당신의 양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제 자유가 다른 사람의 양심에 의해 판단을 받는 걸까요? 제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에 참여한다면 왜 비난을 받나요? 요점은 이렇습니다. 만약 당신의 세계관이 좋은 상태이고 당신의 양심이 당신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라면, 왜냐하면 당신이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고 고기가 오염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질문을 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교도일지라도요.

이교도는 당신이 그렇게 하는 것이 우상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당신은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기를 원하지 않을 테니, 당신은 이 고기와 우상에 대한 명확성의 부족을 피해야 하며, 그러므로 당신은 당신의 양심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양심 때문에 그것을 거부할 것입니다. 흥미로운 변화가 아닌가요? 그들은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교도일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그것이 무언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따라서,, 당신은 그들에게 그럴 근거를 제공하고 싶지 않고, 당신은 그것으로부터 자신을 고립시킬 것입니다. 여기 흥미로운 내용이 있고, 제 생각에 이것을 어떤 표면적인 방식으로 읽고 오해할 때, 이것은 양심을 위해 아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쁜 번역이고, 나쁜 번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의 번역이지만, 독자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양심에 대한 질문은 하지 마세요. 양심에 대한 질문은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이건 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관의 문제입니다. 세계관은 불안정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고기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그것이 그 문화에서 어떤 식으로든 그 우상 숭배와 연결된다면, 당신은 참가야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 한계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31절에서 그는 마무리하면서, 당신이 먹거나 마시거나 무엇을 하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하나님의 교회든, 아무에게도 걸려 넘어지게 하지 마십시오. 다시 말해서, 믿지 않는 이웃, 문제가 있는 유대인,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말합니다. 내가 모든 면에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과 같이, 나는 내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노라.

내 모범을 따르고, 나를 본받으세요.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릅니다. 와, 당신의 문화를 다루는 건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힘들게 만드는 건 당신이 성숙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이런 모든 조니-후발자들이 와서 문제를 일으키고 당신의 특권을 빼앗기 시작하면, 당신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솔직히 말해서, 1세기에는 훨씬 더 어려웠을 겁니다. 1세기에는 역사적, 지리적, 문화적 맥락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짐을 챙겨서 상황이 바뀌는 마을 반대편으로 갈 수는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문화에서는 동의할 수 있는 신자 공동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게 항상 사실이 아니었고, 어떤 면에서는 나쁠 수도 있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1세기 로마 코린트에서 당신은 갇혔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문제를 다룰 수 있어야 했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세계관과 가치 체계를 이해해야 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이해에서 당신보다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다루는 방법을 이해해야 했습니다. 도전적이지 않나요? 글썄요,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고, 제가 양심과 관련하여 언급한

이러한 항목 중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 잘못 이해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돕기 위해, 저는 양심에 대한 127페이지의 여백이라고 부르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원하는 것보다 더 빨리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양심에 대한 성경적 개념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좋아요, 제가 그것을 썼습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127페이지. 양심을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현상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설명해야 할 때 우리는 난제에 빠지게 됩니다. Dobson 박사의 최근 칼럼인 Answers Your Questions에서 저는 이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Dobson은 이 용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이는 수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는 양심이라는 주제가 매우 복잡하고 중대한 주제라고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철학자와 신학자들은 수세기 동안 그 의미에 대해 고심해 왔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양심에 호소하는 것의 불안정성에 대한 건전한 직관으로 제시된 심리학적 분석에서의 사용에 대한 몇 가지 관찰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신약성서가 여러 차례 그 용어를 인용하고 성령이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지적함으로써 선택합니다.

그에 대한 증거 본문은 없지만, 그가 말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는 양심이 한편으로는 우리의 인도자가 아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신이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글썄요, 어떤 순간에 양심은 무엇일까요? 양심이 당신 자신에게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가 말했듯이 신이 당신에게 말하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적절한 속삭임,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내부적인 일들, 혹은 우리가 양심이라고 부르는 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양심이 전혀 속삭임을 주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 양심은

이걸 해도 괜찮다고 말하고 다른 사람의 양심은 안 된다고 말하는 상황을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요 ?

그게 당신이 고정관념을 따른다면, 아주 인기 있는 고정관념인 양심이 가이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글썄요, 솔직히 말해서 양심은 가이드가 아닙니다. 그것은 감시자이고, 저는 이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가이드와 모니터는 다릅니다. 가이드는 의견을 시작합니다. 모니터는 이미 확립된 의견을 규제하고 관찰합니다.

그리고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양심의 역할은 우리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질서 있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양심은 우리에게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그것을 얻어야 하지만, 양심은 우리가 우리의 세계관과 가치관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기성찰 능력을 갖도록 도와줍니다.

127페이지 하단에는 양심의 본질과 기능을 이해하는 길은 양심이 가치 체계와 관련하여 어떤 역할을 하는지 분별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치 체계는 우리가 변형된 마음의 산물로 식별한 것입니다. 제 논제는 가치 체계가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유일한 데이터베이스로서 우리의 가이드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끔찍하고 주관적이며 무인지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양심은 우리의 자기 인식, 즉 우리의 자기 의식에 대한 신이 주신 기능이며, 이는 우리의 가치 체계의 지시에 대한 증인입니다. 그러니, 다시 제 작은 스틱맨이나 스틱우먼으로 돌아가 생각해 보면, 당신은 여기에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죠? 이것은 당신의 세계관과 가치관입니다. 당신의 자기 반성 능력은 당신이 삶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다룰 때 이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은 길을 운전하다가 반쯤 벗은 여자가 있는 광고판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갑자기 당신의 마음은 유혹과 죄의

가능성으로 경주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세계관과 가치를 침해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양심은 감시자로서,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성적 순수함과 당신의 가족과 아내에 대한 충실함 등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럴 수 없습니다. 양심이 당신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은 감시자이지, 시작자가 아닙니다.

세계관과 가치관은 창시자입니다. 128페이지 상단. 양심은 입법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신과 세상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기준 틀 안에 존재하는 법칙에 대한 증인입니다. 양심은 우리 존재 내부의 어떤 독립적인 실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자기 인식적 비판을 할 수 있는 능력의 한 측면일 뿐입니다.

우리가 인식하고 적용하는 가치를 위반하면 우리가 느끼는 고통은 양심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논리적 구성물입니다. 그것은 존재론이 아니라 설명의 용어입니다. 우리가 행동 방침을 숙고하고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의 양심이 우리에게 경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고 가정합니다.

글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자신의 방식이나 고속도로에 대해 너무 고집이 세서 다른 기독교 사역자들을 학대하고, 자신의 생각 방식에 너무 집착해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기독교 지도자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견, 자신의 행동 방식을 신격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할 것입니다. 글쎄요, 제 양심은 이 판단에서 깨끗합니다. 글쎄요, 물론이죠, 그것이 당신의 세계관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문제는 당신의 양심이 아닙니다.

당신의 문제는 당신의 세계관입니다. 당신은 잘못된 나무를 짊어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설명의 용어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 방침을 숙고하고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면, 우리는 양심이 우리를 괴롭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적절하다고 가정합니다. 마지막 시나리오는 잘못된 것입니다. 양심의 역할이 우리가 가치와 어떻게 관련되는지 감시하는 것이고 가치 체계가 특정 영역에 프로그램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양심의 기능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 기능은 우리의 가치 판단을 증언하는 영역 내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당신의 세계관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느낄 것입니다. 양심은 당신이 나쁜 가치관을 가지도록 격려할 것입니다. 양심은 단지 당신이 그런 것들과 접촉하도록 하는 모니터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양심은 마치 당신 외부에 있는 것처럼 독립적인 판단을 제공하지 않지만, 가치 체계, 세계관, 가치 체계가 이미 우리의 자기 반성 능력으로 전달한 판단을 증언합니다.

증인은 양심이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되는 주요 용어입니다. 양심이 나타나는 성경의 모든 곳을 살펴보면, 사실 구약성경에는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언어의 본질과 세계관의 본질, 히브리인, 신약성경 상황과 관련하여 제가 다루지 않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양심이라는 용어는 고린도서 때문에 등장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연대순으로 보면 바울의 신학화는 이 고린도서 논의에서 자극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흥미로운 글이네요. 하지만 성경적 자료만 따져보면 양심은 증인이예요. 자기성찰 능력의 기능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판사가 아니다. 세계관과 가치가 판사다. 양심은 증인이다.

훌륭한 비유입니다. 누군가를 법정에서 증인으로 데려오면 그 증인이 말할 수 있는 것은 본 것뿐입니다. 그들이 본 것에 대한 자신의 의견이나 해석의 영역으로 벗어나기 시작하면 검찰이나 피고인의 변호사는 소문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본 것에 대한 증인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법정에서 그것에 대해 판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증인은 양심의 역할에 대한 훌륭한 비유입니다.

양심은 우리의 세계관과 가치 체계를 증거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그것과 일치시킵니다. 우리가 우리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어기면, 우리의 양심은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추구한다면, 우리 안에 일종의 평화와 평온함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양심이 반드시 바로 그곳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세계관과 가치관과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읽어드린 두 문단은 꽤 자세하게 인쇄되어 있고, 여러분이 조금 숙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양심이라는 용어에 대한 간략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례합니다.

양심은 우리가 자주 듣고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아몬드 조이 캔디 바와 같습니다.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맛있습니다.

몇 년 전 아몬드 조이 캔디 바 광고였는데, 그 광고는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맛있었어요. 글썄요, 많은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 영적인 삶에서, 누군가에게 영적인 것이 무슨 뜻인지 묻는다면, 그들은 당신을 쳐다보고, 몇 가지 대답을 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당신이 그들에게 압력을 가하면, 그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르죠. 왜냐하면 그것은 일종의 영적인 것이기 때문이죠.

그들은 발을 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맛있습니다.

훌륭한 단어지만, 무슨 뜻일까요? 음, 양심도 같은 범주에 속합니다. 훌륭한 단어입니다. 사람들은 이 단어에 온갖 의미를 부여하지만, 당신이 묻는다면, 이 단어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증명해 보세요.

갑자기, 오, 그냥 좋아, 하지만 설명할 수 없어. 사용은 하되 설명은 안 돼. 글썄, 그러면 안 돼.

성경에서 사용된 간략한 역사. 우선, 양심에 대한 히브리어 용어는 없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언어는 남용되어서는 안 되지만, 언어는 사고방식을 들여다보는 창문과 같습니다. 히브리인은 사람을 갈라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몸, 영혼, 영이었지만, 그들은 하나의 단위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머릿속에서 내부적으로 논쟁하는 어떤 종류의 아이디어는 존재론과 관련하여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때때로 심장이라는 단어는 합리적 과정 때문에 그 범주에 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어학과 관련하여 그것은 거기에 없으며, 저는 다른 글에서 그것을 남겨둘 것입니다.

그리스어 구약성서는 이 단어를 두 번 사용합니다. 전도서 10:20과 욥기 27:6입니다. 매우 흥미로운 용법입니다. 전도서에 나오는 단어인 듯합니다. 왕에 대해 나쁜 말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침실에서라도 그렇게 한다면, 침실은 세상에서 가장 사적인 장소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당신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사적인 것입니다. 작은 새가 그것을 가져가서 왕에게 말할 것이고, 왕에 대해 나쁜 말을 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은 가장 초기의 사용에서, 당신이 양심을 어기면, 그것이 당신을 해칠 수 있다는 생각인 듯합니다. 당신이 양심을 어기면, 그것이 당신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성서 그리스어에서 잠깐 사용되기도 합니다.

구약성서의 개념은 레이(lei)라는 개념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레이는 심장, 카디아(cardia)를 의미하며, 심장은 합리적 영역이기 때문에 자기성찰 능력의 일부입니다. 양심은 동사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다(to know)라는 뜻입니다. 가장 오래된 용법은 단순히 알다, 인식하다, 지식을 공유하다, 때로는 비밀스러운 지식을 공유하다를 의미합니다.

신약에서 연대순으로 처음 사용된 것은 사실 고린도전서입니다. 신약 패턴에 따르면 바울은 27번 사용했습니다. 베드로는 3번 사용했습니다.

동사인 synopsis가 사용된 다른 사례가 몇 개 있지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구절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구절은 양심의 사용 측면에서 연대순으로 정리되었으며, 가장 많이 사용된 곳이 고린도 서신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니에요, 알다시피, 저는 여기에 제 삽입을 확인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특정 목록을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모든 용례이므로, 가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몇 가지 동사를 포함시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알다시피, 동사, 고린도전서 4장 4절, 동사를 위한 동사가 있거든요.

있지만, 대부분은 양심의 명사입니다. 양심, synodesis는 ~와 함께 알다라는 생각에서 유래했습니다. 동사, ~를 알다, 그리고 전치사 ~와 함께, 또는 반주, 반주입니다.

그리고 자기 지식과 함께, 그 내적인 조각은 이 용어의 형태론과 같습니다. 이제, 저는 129페이지에 굵은 글씨로 제 궁극적인 정의를 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모든 구절을 살펴볼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저는 제 책인 Decision Making God's Way, Knowing God's Will에 양심에 대한 장을 가지고 있는데, 라고스 시스템을 통해 영어나 스페인어로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결국 도달한 곳은 여기입니다.

양심은 비판적인 내면의 자각이며, 우리가 인식하고 적용하는 규범과 가치에 대한 증인입니다. 그것은 규범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치를 만들지 않지만 단지 비유를 사용하기 위해 우리의 기존 소프트웨어에 응답할 뿐입니다.

양심은 비판적으로 발전된 세계관과 인생관과 관련하여 교육받고 프로그램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을 위한 이러한 발전은 성경의 특별 계시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로마서 12:1과 2,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되고, 당신은 당신의 세계관 체계를 바꾸고, 양심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과 함께 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전에 다른 각도에서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양심에는 몇 가지 주요 특징이 있으며, 이는 특히 제가 기독교적 의사 결정이라고 부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양심은 자기 비판을 위한 신이 주신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양심은 우리 내부에서 숙고하기 때문입니다. 양심은 우리 자의식의 일부입니다. 양심은 인류의 자기 반성 능력의 한 측면입니다.

양심을 어떤 종류의 독립적인 목소리로 의인화해서는 안 됩니다. 양심은 신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그들을 동일시하지 마십시오.

양심은 악마의 목소리도 아닙니다. 당신 내면에서 들리는 그 목소리는 당신 자신이 자신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자기성찰 능력으로 인해 우리 모두는 항상 이렇게 합니다.

길을 운전하면서 사람들을 본 적이 있나요? 누군가가 당신을 지나가거나, 당신이 그들을 지나가면서, 당신이 저쪽을 바라보면, 그들은 미친 듯이 떠드는 것 같지만 큰 소리로 떠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강의를 준비하고 있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있거나, 무언가를 정당화하기 위한 대화를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모든 종류의 것들. 하지만 이것은 인간으로서 우리의 일부입니다. 자기 반성 능력.

그리고 좋은 인간, 살아있는 인간은 끊임없이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하고 대안을 고민합니다. 그리고 양심이 그 안에서 역할을 합니다. 의사 결정에서 세계관과 가치가 행동 방향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양심은 당신이 하는 일과 관련하여 당신의 열망하는 파트너와 비슷하며, 그것이 당신의 세계관과 가치에 맞는가. 고린도전서 4장 4절을 살펴보았지만, 충분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언급하고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고, 이제 그것을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4는 문제의 문을 활짝 여는 매혹적인 텍스트입니다. 이제 번역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 구절은 번역을 검증하기 위한 차트에 포함하기에 좋은 구절입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4:4는 NRSV를 먼저 읽어보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 대한 어떤 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정말 킹 제임스 버전과 매우 비슷합니다. 저는 제 자신에 대한 어떤 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으로 무죄 판결을 받지 않습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한 어떤 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양심의 사용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저는 알지 못합니다. 보세요, 그것은 인식 문제를 사용합니다.

나는 알지 못한다, 부정, 동사를 알고 있다와 함께. NIV 2011을 들어보세요. 내 양심은 깨끗합니다.

보세요, 양심이라는 명사는 이 구절에 전혀 없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 대한 어떤 것도 알지 못합니다. 킹 제임스와 NRSV는 둘 다 그것을 꽤 간단하게 번역합니다.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2011 NIV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양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제 양심은 깨끗합니다.

이제 제 목적을 위해, 저는 그것이 그렇게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살펴보죠. 4절: 제 양심은 깨끗하지만, 그것이 저를 무죄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게리 미더스 박사입니다. 이것은 23차 세션, 고린도전서 8:1-11:1, 우상에게 제사하는 음식에 대한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